

News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올해 동결...청년·신혼 한도 확대

뉴시스

국토교통부, 임차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 확대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이 있으나 올해는 동결... 청년은 2억원으로 확대,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확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

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높아진다

한국경제

다음달 1일부터 LTV 상한이 60~70%에서 80%로 상향...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신규 주택 전입 규제는 완화... 준공 후 시세 15억원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방침

변동 보다 고정 주담대 금리가 낮은 '금리역전 현상'

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더 낮게 유지 중... 코픽스는 크게 오른데 비해 고정금리 산정 기준인 금융채는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
신한 고정금리형 금리 4.34~5.39%로 변동금리형보다 낮아... KB국민과 하나은행도 각각 4.11~5.61%, 4.8~6.1%로 고정금리가 더 낮은 모습

토스, 3000억원 신규투자 확보...기업가치 8.5조 평가받아

헤럴드경제

비바리퍼블리카, 7월과 8월 두 차례에 나누어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기업가치 총 8조 5,000억원 평가받아...
우선 3,000억원의 투자를 받기로... 알토스벤처스, KDB산업은행, 광주은행이 투자 단행... 다올인베스트먼트와 미래셋증권도 소규모로 투자 단행

생명보험사, 11년만에 상조시장 노크... 금융위, 요구 수용할까?

머니S

생보사들, 연간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하기 위한 작업 착수... 매년 상조시장 커지는 가운데 중소 상조업체 퇴출되는 틈 타 진입 시도 중
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 검토하겠다고 밝혀... 영업실적 개선에 블루오션 중 하나

화상통화 보험영업 길 열릴까

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이 선정... 현재까지는 텔레마케팅만 허용될 뿐 화상통화를 위한 보험 영업은 사실상 불가
업계에서는 규제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보고 있어... 모범규준 마련 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예상...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보험 영업 환경 개선 기대

단 몇개월이라도 거래소, 시장조성자 재모집...이르면 8월초

뉴스1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재모집을 위한 준비 착수... 해당 절차 등을 금융위와 논의 중인데 이르면 내달 초에 모집공고 낸다는 계획
2022년 활동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길어야 5개월...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만큼 시장에 유동성 공급 임무를 다할 계획이라는 반응

증권사 22곳,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

서울경제

이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높은 증권사는 총 22곳... 전체 공시 증권사 중 26.2%... 가장 높은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으로 9.9%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 곧 10% 돌파 예상... 하반기 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10%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